

朴善長의 五倫歌 研究

李 相 寶*

目 次

- | | |
|--------------------|---------------|
| 1. 序 言 | 4. 水西의 五倫歌 |
| 2. <水西集>의 內容과 編刊經緯 | 5. 歷代 五倫歌의 系統 |
| 3. 水西의 生涯와 師友關係 | 6. 結 言 |

1. 序 言

韓國의 古典文學은 그 遺産의 傳承·保存 狀態로 볼 때, 詩歌文學 作品들이 質的으로또는 量的으로 越等히 많다. 新羅의 鄉歌(詞惱歌)는 勿論이요, 高麗一代에 口誦되던 景幾體歌(別曲體)와 歌謠(俗歌) 등은 그 當時의 散文文學이 零星한 데에 比하여, 훌륭한 國文學作品으로서의 脈絡을 이어 주고 있다.

麗末에 그 形態가 成立된 것으로 여겨지는 歌辭와 時調는 朝鮮朝 五百年 동안에 가장 代表的인 文學으로 發展한 實態로 보아서도, 詩歌文學이 차지하는 領域이 可謂 絕對的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中에도 時調文學은 이른바 士大夫들의 詩餘로서, 그들의 風流生活을 表現하는 데에 適合한 樣式일 뿐만 아니라, 敎化의 方便으로도 많이 仍用되었던 것임을 發見하게 된다. 곧, 儒敎倫理의 具現을 위하여 訓民歌의 性格을 지닌 五倫歌類의 時調가 그것이다.

그러하여, 이러한 五倫歌의 作品이 數多히 發表, 整理된 것을 볼 수 있거니와, 여기 새로이 發掘하여 紹介하려는 水西 朴善長의 五倫歌는 일찌기 學界에 알려져 있지 않은 時調 作品이었다.

距今 365년 전이나 되는 1612(光海君 5)년에 지은 이 作品이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作者의 文集인 <水西集>이 研究家들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筆者는 年前에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分類記號 단산 093.33 수시선 日 1.2)에서 <水西集>을 目

* 敎養學部長, 敎授, 文學博士.

睹한 바, 서울에서는 餘他 圖書館에 收藏된 곳이 지금으로서는 따로 없는 듯하다.

그리하여, 이 文集을 中心으로 傍系 資料의 蒐集으로 數個月을 보내던 차에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서 實施한 安東·奉化地方 學術踏查 報告書에서

慶北 奉化郡 物野面 梧田洞 鄭樂圃 後孫 鄭守鎮氏宅 〈水西集〉二册 入手
란 記錄과 함께 林 仙默 님의 報告論文을 읽게 되었다.¹⁾

그러나, 그 論文은 作者의 生涯와 爲人을 略述하고, 五倫歌의 紹介에 注力한 것이었다. 따라서, 筆者는 여기서 더욱 더 廣範한 資料整理를 통하여 作家論과 五倫歌의 系統을 究明하고자 한다. 그리고, 可能하면 後代에 끼친 影響關係에 대해서도 添記하여 朴善長의 五倫歌가 지니는 國文學史上의 位置를 定立해 둘까 생각한다.

2. 〈水西集〉의 內容과 編刊經緯

〈水西集〉은 水西 朴善長의 詩文과 師友錄 등을 總網羅해 놓은 文集으로서, 그의 8世孫 龜一과 7世孫 周元 등에 의하여 刊行되었으니, 水西公의 死後 184년 만에 이룩된 일이었다.

公之八世孫 龜一 奉遺集 求弁語 遂書此 即歸之云 上之九年己巳 五月下辭 晉陽鄭宗魯序

朴斯文周元 奉袖二册 來示不佞曰 此先祖水西公集也…有遺文若干篇 收拾斷爛之餘 卜諫繡梓 即不可無弁卷文字 願吾子之… 上之十年庚午 暮春寒食節也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聞韶金絃謹書

이 兩人의 序文에서 “上之九年己巳”는 純祖 9(1809)년이요, “上之十年庚午”는 純祖 10년(1810)에 해당하니, 그 刊行時期를 純祖 10년으로 봄이 妥當할 것이다.

成均館大學校 圖書館所藏本 〈水西集〉의 書誌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四卷, 二册(乾:卷之一 46장, 卷之二 25장, 坤:卷之三 34장, 卷之四 25장),
木版本, 縱 31.5cm, 橫 19.5cm,
韓裝, 五間裝册, 黃色表紙, 內廓 縱 19.5cm, 橫 16cm,
雙邊, 序 6行, 本文 10行, 1行 19字, 上下 白口, 花紋魚尾, 楮紙.

〈水西集〉 乾(71장)과 坤(59장) 두 책의 內容을 編次에 따라 살펴 보면,

- 序文 2편(鄭宗魯, 金絃) (11장)
- 水西先生 年譜 (10장)
- 水西先生 文集 目錄 (13장)
- ◎ 卷之一
詩: 指佞草 外 73首

1) 林仙默: 水西와 五倫歌(檀國大 國文學論集 第2輯 pp. 171~182. 1968.)

◎ 卷之 二

詩：次李仁伯榮門韻寄李大中 二首 外 72首

五言長篇：記病 外 52篇

七言長篇：千梳後有飄思遂吟 外 15篇

長 短 句：三五七言 外 6篇

輓 詞：輓金亨叔大人 外 6篇

◎ 卷之 三

辭：暮春辭

賦：鷄述嶺 外 4篇

書：上寒岡鄭先生述書 外 3篇

箴：自警箴，自誓箴，十勿箴，一壺菴箴

銘：剪板銘

箋：誕日箋

奉安文：丹山書院祭酒禹先生奉安文 外 9篇

祭 文：祭西厓柳先生成龍文 外 7篇

上樑文：丹山書院上樑文，龜灣書堂上樑文

策：問窮養達施，問教養人材

◎ 卷之 四

雜著：洞稷更定約文 外 2篇

歌：薄薄田歌示歌，五倫歌

○ 附錄：師友錄，祭文，奉安文，告由文，常享祝文，贈遺詩，墓表，行狀，家狀

의 順으로 되어 놓았다.

그 중에서 卷之 四 歌가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인데, ‘薄薄田歌’는 그의 長子인 歌에게 보이기 위해 지은 것인데 漢文詩歌요, ‘五倫歌’는 洞中 學者들에게 警策하기 위하여 지은 國文詩歌 곧 時調作品이다.

3. 水西의 生涯와 師友關係

(1) 生 涯

水西 朴善長(1555~1617)에 대한 略歷이 巷間의 人名辭書類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그의 生涯가 京師의 華職에서 顯達한 官名을 떨치지 못했고, 오직 寧海·榮州 等地的 鄉里에서 安貧樂道의 生活로 無意求進하다가 晩年에야 赴學하여 禮安縣監을 지내고, 慶尙道都事로 끝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의 年譜와 行狀 등을 참고하여 그의 生涯와 師友關係를 昭詳히 밝혀 두고자 한다.

그의 本貫은 務安朴氏로서 曾祖父는 之蒙인데, 서울에서 寧海로 移居한 분이다. 祖父인 元基는 進士였으며, 父親은 이름이 全(1514~1558)이요, 字는 勉夫, 號를 松坡라 했다. 文集〈松坡逸稿〉가 傳하는 바 그의 行狀을 쓴 鄭宗魯의 記錄에 依하면,

公神彩瑩秀 穎悟出倫 甫六七 已知讀書 一覽輒記 嘉靖丙午登增廣第 戊申以典籍 拜監察 辛亥遷禮郎 明廟右文 而朝臣有崇佛之議 公上疏闢之 得聖俞尋 以博士 直拜北評事及陸辭上賜珍味以寵之……甲寅戶郎 因家食 丁巳復拜 戊午卒於京邸 壽四十五 返葬于寧海輿峴負子原²⁾

이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水西公의 父親은 어려서부터 “神彩瑩秀”하고 “穎悟出倫”한 분으로서 1546(明宗 1)년에 增廣試에 登第하여, 벼슬이 北評事를 거쳐 戶郎까지 올랐으나, 아깝게도 45歲의 壯年期에 棄世한 것이다.

母夫人은 熊川朱氏로서 司直 幸의 따님이요, 典籍 善林의 孫女인 바, 閨範을 지니고, 婦道를 다한 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는 男便을 일찍 여회자, 어린 아들 善長을 데리고, 蔚珍으로 또는 榮川으로 移徙해 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 學問을 힘쓰게 했으니, 一男 善長을 文科及第시켰고, 孫子 瑋도 또한 文科에 뽑히도록 했으므로, 可謂 孟母에 견줄 만하였다.

配熊川朱氏 司直幸之女 典籍善林之孫 有閨範 盡婦道爲子 承旨善長 早孤 遷蔚珍 使學于舅氏 反遷榮川 使學于三松南公 竟成就之 世以比孟母云 有一男 即善長 文科 贈都承旨 是有三男一女 男敬 有文章節行 瑋 文科 判校 略 僉樞 女黃以久³⁾

水西公이 孕胎했을 적엔 母親 朱氏의 胎夢에 神仙이 하늘에서 내려와 錫杖을 주며, 이는 ‘하늘의 기둥’이라고 하였다.

始先生在身 母夫人朱氏 夢有異人 自空下 錫一杖曰 此天柱也 而已先生生 而岐嶷異於凡兒⁴⁾

그리하여, 1555(明宗 10)년 乙卯 5월 11일에 寧海府 翼洞에서 誕生했다.

그러나, 水西公이 4歲가 되던 1558(明宗 13)년 4월에 父親 評事公이 戶曹正郎으로 서울에서 逝去하매, 오로지 母夫人의 養育을 힘입게 되었다.

5歲에 始知讀書하고, 7歲 때는 어머님을 따라, 蔚珍縣 九萬리에 있는 外家로 가서, 글공부를 始作하여, 8歲에 大學을 읽었다.

그는 讀書에 專念하며 어린 벗들과 놀 때에도 결코 실없는 戲弄을 입밖에 내는 법이 없었으며, 스승의 공부 독촉을 받지 않았다.

辛酉 先生 七歲 隨大夫人 僑居于蔚珍縣 九萬里第 始就學于舅氏 蔚珍 先生外鄉也 母夫人朱氏 以蛋寡 兒幼不教 無以成就 乃寓居九萬 使之就學

2) 松坡 逸稿 單 鄭宗魯撰 行狀

3) ibid (2)

4) 水西集 乾 水西先生 年譜

先生自知讀書 未嘗隨兒嬉戲 慢辭褻語 不出於口 專意讀書 不待師門呵督⁵⁾

10歲 때에 다시 母親을 따라 榮川郡 北花川里로 가서, 三松 南先生에게 學業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蔚珍에서 공부하던 때에 母夫人 朱氏의 꿈에 돌아가신 父親 評事公이 나타나서 啓示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곧, 顯夢하기를,

“榮川の 南某가 能文有學行人이니, 내 아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요, 또 그곳에 가서 살지던 子孫이 繁盛할 것이니, 어찌 가서 求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므로, 옮겨 살 것을 決心하고, 南夢鰲의 書堂을 찾아 갔던 것이다. 이 때의 決斷이 마침내 子孫들의 榮貴를 가져올 수 있었던 契機가 되었다.

甲子 先生 十歲 自蔚珍 隨母夫人 移寓于榮川郡 北花川里 受業于三松堂南先生夢鰲之門
先生 居蔚珍數歲 母夫人朱氏夢 評事公 謂曰 榮川南某 能文有學行人 此可以教吾子 且其所居
村 有撒丹花居之 子孫繁衆 盍往求諸 夫人決意遷居 使之受業於南先生 是時 南先生 築書堂
教誨蒙士 學徒益集焉⁶⁾

12歲 때에는 能詩하여 南先生이 ‘烟’과 ‘霜’字로써 聯句를 지으라 하자, 應口輒對하여
烟生僻村只數家
霜力無爲岸自空

이라 表現하며, “氣像疎爽 語意清遠 必自遠到矣”라는 評讚을 받았다.

13歲 때에 지은 ‘指佞草詩’도 文集에 傳하는데, 그의 詩才가 早熟했음을 알 수 있다.

1568(宣祖 2)년 戊辰에 14歲로 三松先生의 長女 南氏(1550~1639)를 夫人으로 맞아, 19歲에 長子 翬을 낳았고, 22歲에 二子 瑋을, 36歲에 三子 璣를 낳게 되었다.

戊辰 先生 十四歲 聘夫人南氏 夫人 三松南先生之長女也 生于嘉靖庚戌
癸酉 先生 十九歲 十一月 子翬生
丙子 先生 二十二歲 十月 子瑋生
庚寅 先生 三十六歲 六月 子璣生⁷⁾

이 때부터 50歲가 되기까지의 35년간은 水西에게 있어서는 道學에 沈潛하여, 當代의 碩儒들을 拜訪하고, 各處의 書院을 往來하면서 道義交誼하던 時期였다. 그 무렵의 代表的인 事實들만 年譜에서 摘記해 보면, 다음과 같다.

辛未 先生 十七歲 讀心經小學 有感作詩
丁丑 先生 二十三歲 往拜西厓柳先生
己卯 先生 二十五歲 讀書于伊山書院 歸路訪金栢巖功 朴醉睡瀟 吳竹爛瀟
庚辰 先生 二十六歲 往拜月川趙先生 歷訪李良齋德弘于杜陵書堂 講心經質疑
壬午 先生 二十八歲 八月 往省輿嶼先山 行到泣嶺 有感懷詩

5) ibid (4)

6) ibid (4)

7) ibid (4)

辛卯 先生 三十七歲 春 中鄉解進士試 居魁 ○七月 哭三松先生
 壬辰 先生 三十八歲 春 葬三松先生 有祭文 輓詞
 甲午 先生 四十 歲 往伊山書院 移書道內
 丁酉 先生 四十三歲 中鄉解試 居魁
 戊戌 先生 四十四歲 往伊山書院 與一鄉儒生 共議上天將書
 辛丑 先生 四十七歲 秋 中鄉解生員試 居魁
 壬寅 先生 四十八歲 往伊山書院 見龍蛇事蹟一卷 具鶴峰先生實事草疏
 癸卯 先生 四十九歲 二月 往見忘憂堂郭公再祐 以詩贈之 ○五月 往伊山書院 與竹牖吳公 共議
 修正嘯臯先生文集 ○八月 撰集兵亂時事蹟一卷 ○九月 仲子瑄登第
 甲辰 先生 五十歲 四月 製晦齋李先生伸寃疏 ○十二月 中增廣東堂鄉試

그는 여러 차례에 鄉解에 首魁로 뽑혔으나, 無意求進하고 道學에 단 篤志力行하였으니, 心經·小學을 愛讀했다.

또, 伊山書院은 그의 學問 窮理의 修行處였으니, 그곳은 1573(宣祖 7)년에 創建하고, 翌年에 賜額을 받았으니, 李滉을 配享한 書院이었다.

그가 往拜한 西厓 柳成龍, 月川 趙穆, 艮齋 李德弘, 藥圃 鄭琢 등은 當代에 文名을 떨치던 退溪門人들이었으니, 水西公은 退溪의 學統을 繼承한 셈이요, 栢巖 金功, 醉睡 朴漉, 竹牖 吳滙 등은 서로 學業砥礪하던 處地였다.

西厓柳相公 月川趙先生 特以道義推獎之 金晚翠 吳竹牖 諸公 亦以學業相砥礪焉⁸⁾

그리고, 37歲 때에는 聘丈이며 師父였던 三松先生이 歸天하자, 20여년을 受學한 水西公의 哀悼之心이 極盡하여, 三年 동안 朔望奠에 必參하여 그 誠情을 풀었다.

南公歿 爲心喪三年 朔望奠 必參焉⁹⁾

水西公이 38歲로 壬辰倭亂을 榮川에서 當할 때에, 마침 學堂에 있었다. 明兵이 그곳을 지나다가 唐將이 突然 火爐를 던져 불씨와 재가 방안에 가득 찼으나, 水西公은 泰然自若했으므로, 도리어 致敬而去했을 만큼 器局이 峻整했었다.

時丁倭奴犯順 天兵南下 府君 適在賢堂 有唐將 突前投爐 煨炭滿座 府君 處之自若 唐將偉之 反致敬而去¹⁰⁾

또, 한 번은 鄭仁弘의 名聲이 藉甚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野鶴’이라고 稱頌했는데, 마침 臺官으로서 榮川에 이르렀음을 보고, 그 爲人이 奸慝함을 알고 假鶴詩를 지었으니,

有鳥鶴爲名
 雙眸光遠射

8) ibid 坤 家狀(朴齊顏 撰)

9) ibid (8) 行狀(鄭宗魯 撰)

10) ibid (8) 家狀

一鳴聲聞天
聞者焉知假

라 하여, 미리 小僞를 꿰뚫어 보는 炯眼을 가졌었다.

그는 51歲 때에 뒤늦게 科擧에 應試하여 增廣別試 丙科에 及第했으니, 二年前에 이미 二子 瑀이 登第하게 된 것이 빌미가 되어, 母夫人의 懇請에 따른 것이었다. 그 自身은 不樂 赴擧하였으나, 母親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孝誠으로써 한 것이니, 88歲나 되는 老母의 平生素志를 풀어 드린 셈이다.

乙己 先生 五十一歲春 中增廣別試丙科十七人 李植榜也〔三月九日 覆試 以窮養達施策 十九日 廷對 以教養人材策 蓋先生子瑀 登第後 不樂赴擧 母夫人曰 汝子雖登第 豈若於汝身親之哉 先生不得已赴擧 遂釋褐母夫人 時年八十八〕 ○夏往拜西厓柳先生 ○五月 往拜藥圃鄭先生 ○往寧海府謁先壠 ○七月 除成均館典籍 ○十一月 往拜吏判許項

그는 成均館典籍의 벼슬을 받은 뒤에도 如前히 碩學들을 찾아 學問에 힘쓰니, 性理學에 관한 諸書를 읽고, 54歲 되던 5월에는 禮安縣監이 되어, 陶山書院에 있는 退溪文集 등을 읽었으니, 그로서는 欣快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丙午 先生 五十二歲 讀河圖洛書 易圖註解 經繫辭 禮經心經性理等諸書 ○有靜養詩 ○有自警箴 ○有剪板銘 ○有浴川詩

丁未 先生 五十三歲 六月 修書于寒岡鄭先生 ○七月 往河隈 爲文祭西厓柳先生 ○歷弔月川趙先生

光海元年戊申 先生 五十四歲 正月製丹山書院上樑文 ○五月 除禮安縣監 ○六月 赴任 ○十月 往醴月川先生 ○十二月 往陶山書院 看校正退溪先生經書釋疑¹¹⁾

그가 禮安縣監으로서 聖廟祭器를 새것으로 바꾸고, 訟事를 公平히 다스리니, 巡察使도 그의 莅官事勤의 治績을 기렸다.

戊申 知禮安縣 爲政一以愛民 興學爲務 顯有治績 巡使到縣 謂曰 聞先生莅官事勤 甚慰甚慰¹²⁾

그리하여, 1년 동안 任期를 마치고 翌年 4월에 榮川으로 歸家할 때는 行李는 蕭然하였고, 집에 錢穀이 비어 있었으므로, 禮安 縣人들이 그 소식을 듣고, 三斛米를 보내 주기까지 하였으니, 可謂 清白吏라 할 것이다.

己酉 先生 五十五歲 四月 歸家 ○禮縣士子 送米三石¹³⁾

及歸 行李蕭然 益無儲粟 禮縣人聞之 收送三斛米 以周其急¹⁴⁾

이로부터 59歲 때에 慶尙道都事로 任命받기까지의 4년 동안은 더욱 讀書에 沈潛하면서 聖賢性理之書를 講究하였다.

11) ibid (4) 年譜

12) ibid (8) 家狀

13) ibid (4) 年譜

14) ibid (8) 家狀

57歲 때는 9월에 龜灣書堂을 짓기 始作하여, 翌年 58歲 되던 壬子(1612)年 8월에 竣工을 보게 되니, 時調 五倫歌를 지어 洞中蒙士들을 警戒하면서, 教誨不倦한 나날을 보내었다.

辛亥 先生 五十七歲 九月 卜書堂地于龜灣之上 ○十一月 製書堂上楹文

壬子 先生 五十八歲 八月 龜灣書堂成 作五倫歌 以警蒙士〔以俚語作歌 使洞中學者 歌以警策〕
○又作十勿箴 以勵人心 ○獻慈夫人壽〔母夫人 時年九十五 仲子瑀 宰禮安 辦備宴需來設〕 ○九月 作青城書院奉安文 ○得伊山書院移建地于林丘〔先生爲伊山洞主 以院基卑濕 堂舍易頽 與諸生 會議移建之計〕 ○十月 製書院移建開基祭文 ○作丹山書院祭酒禹先生奉安祭文 ○讀小學于紹修¹⁵⁾

辛亥 以洞中蒙士 無講學之所 與權陶隱虎臣 琴松陰復古諸公 倡建書堂於龜灣 以爲藏修講學之地 嚴立科條 教誨不倦 作十勿箴 以勵人心 作五倫歌 以警蒙士 更定洞稷約文 立勸勉禁制等條 期與一洞人士 同歸於孝友睦婣之行矣¹⁶⁾

그는 59歲 때 12월에 慶尙道都事로 任命되었으니, 이는 그의 母親이 96歲的 老嫗였기에 가까이 모시고, 定省之孝를 다할 수 있도록 朝廷의 配慮에 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翌年 正月에 詣闕謝恩하고, 2월에 赴任하여 61歲 되던 봄에 任期를 마치고 歸家하여, 伊山書院의 洞主로 明倫堂을 짓는 등 興學에 힘쓰다가 이듬 해 丙辰(1616) 3월 22일에 享年 62歲로 永眠했다.

癸丑 先生 五十九歲 十二月 除慶南道都事〔朝廷以先生 親老 不可曠定省 仕遠方 注擬本道亞使 母夫人 時年九十有六〕

甲寅 先生 六十 歲 正月 諸闕謝恩 ○二月赴任 ○三月受由歸覲 ○造送祭器于屏山書院 ○秋知學右道試 ○九月 受暇還家 獻大夫人壽 ○覆審災傷于右道

乙卯 先生 六十一歲春 秩滿歸家 ○九月 作伊山書院移安祭文 ○十一月 爲伊山洞主 營建明倫堂

丙辰 先生 六十二歲 三月 感微疾以二十二日壬辰 卒于正寢 ○四月 贈通政大夫 承政院都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 尙瑞院正〔以仲子瑀 原從勳加贈〕 ○寒岡鄭先生 送門人來弔 ○十二月十九日乙卯 葬于郡東省知洞午向之原¹⁷⁾

그는 母夫人의 愛顧로 學問에 힘쓰며, 老後에는 閑職이나마 典籍·縣監·都事 등을 歷任하였다. 또, 그의 二子 瑀이 官職에 있었으므로, 平穩한 一生을 살다 간 셈이다. 그리고, 夫人 英陽南氏는 그의 死後 22년인 1639(仁祖 17)년에 享年 84歲로 뒤따라 祔葬하였고, 子孫들도 昌盛했으니,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朴 善長

英陽南氏

- 敬(文章節行 抱璞屢刑) — 三男(休復·安行·安世)
- 瑀(文科 判校) — 一五男二女(安欽·安復·安蕃·安學·安明)
- 璠(僉樞) — 一三男二女(安文·安性·安臣)
- 女適黃以久(士人)

15) ibid (4) 年譜

16) ibid (8) 家狀

17) ibid (4) 年譜

또, 그의 學德은 歿後에도 榮川士林들의 推仰을 받았으니, 年譜에서 該當 部門만 摘記하던 다음과 같다.

- 仁祖大王八年(1630)庚午 正月日 立碑石于墓前 有碣文〔愚伏鄭先生 所撰〕
 - 仁祖大王二十五年(1647) 六月日 埋誌石
 - 肅宗二年(1676)丙辰 十二月十九日丁卯 士林奉安位版于龜灣書堂〔書堂卽先生創建講學之所也 舊在榮川忘年里玉峯山東鬱下 忘年今爲順興地〕廟號曰耆英祠〔廟號及常享祝文 皆古心曹挺猷所製 並享三松南先生夢鰲 松溪琴先生軻 陶隱權先生虎臣〕
 - 英宗大王四十二年(1766) 乙未冬(筆者注 當作丙戌冬) 陞龜灣書堂爲書院
 - 正宗大王五年(1781) 庚子冬(筆者注 當作辛丑冬) 移建于玉峰之東 改廟號曰象賢祠〔移建時 還安祭文 大山李先生象靖所製 廟號亦大山所定〕
- ※ 英祖 42년은 丙戌(1766)이요, 乙未(1775)는 英祖 51년이다. 그리고, 正祖 5년은 辛丑(1781)이요, 庚子(1780)는 正祖 4년이니, 干支計算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

(2) 師友關係

水西公이 어려서는 外叔에게서 글을 배웠으나, 10歲부터 榮川에 移居하여 三松堂 南夢鰲에게 師事하기를 20여년 동안이나 했으니, 그의 人格과 學問을 오로지 三松先生에게서 絶對적으로 繼承되고 形成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同接도 많았으며, 道義推獎하던 當時 碩學들도 있어 <水西集>에 그들과 和答한 漢詩와 書信들이 있어, 그 大綱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는 가장 두드러진 몇 사람과의 交涉狀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南夢鰲(1528~1519)

水西公의 師父이자 聘丈이기도 한 그는 司馬進士로서 平生을 榮川에서 後進敎導에만 專念한 사람이었으니, 英陽人으로 始祖 英毅公 敏南의 26世孫이다.

字는 景祥이요, 號를 三松이라 했는데, 退溪 李滉의 門人인 嘯臯 朴承任(1517~1586)의 弟子로서 退溪學統을 이은 사람이다. 1528(中宗 23)년에 낳으니 參奉 南麟은 그의 父親이다. 1573(宣祖 7)년에 司馬試에 뽑혔으나, 大科를 바라지 않고, 性品이 軒昂不群하여 安貧樂道로써 性理學을 研究하여, 鄉里에서 後進을 訓誨하다가 64歲를 一期로 棄世했다.

그러나, 그의 七十門徒들 중에는 成就人이 많았다. 그의 文集으로 <三松逸稿> 單卷이 傳하는데, 亦是 純祖 9년(1809)에 水西公의 8世孫인 朴龜一이 鄭宗魯의 序文을 받아 <水西集>과 함께 刊行한 冊이다. 이는 三松公에게 子孫이 없었으므로, 비록 外孫의 손으로나마 刊行해서 傳하고자 한 誠意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그 序文에서 鄭宗魯는

上之九年春 順興朴君龜一 持以示余 求弁文曰 三松 吾先祖水西公之外舅也 資氣高邁 器度宏厚 博覽經史 窮探義理 顯不樂進取 既舉進士 隱居教授 以成就後進 爲己任…公又無子孫 今其刊行之責 惟在我外裔 願執事 幸爲之 一言俾得傳信於後也¹⁸⁾

18) 三松逸稿 單 鄭宗魯 序

라고 這間의 事情을 적어 놓았다.

그의 弟子로는 水西 朴善長을 비롯하여, 晚翠 金蓋國, 同知 金九鼎, 松陰 琴復古, 羽溪 李興門, 越中 金泰時, 陶隱 權虎臣, 忘窩 金榮祖, 進士 孫興慶, 生員 金聲震, 都事 朴檜茂 主簿 黃彥柱, 進士 南衢 등과 水西公의 두 아들인 東川處士 朴敬과 悔易 判校 朴瑋도 있어, 실로 濟濟多士들이 雲集해 있었다.

그의 師友錄에는 嘯臯 朴承任의 門人錄과 李炊沙集에서 轉載한 다음 記錄이 있다.

南夢鰲 字景祥 號三松 英陽人 居榮川 生嘉靖戊子 中萬曆癸酉司馬 資稟高邁 器度宏偉 博覽經史 窮探義理 訓誨後進 多有成就 先生嘗贈 剛州北里 南夫子 講榻陵菽 七十徒 退溪先生 示中誠望三益 外慕忘一芥之詩¹⁹⁾

南進士夢鰲 字景祥 爲性軒昂不群 家貧好讀書 研究性理 爲世所推重 享年六十四而終 公力教後生 數邑士子 多所成就 有一男二女 男即衍德潤 女朴善長汝仁 受業于公因牽絲 而玉潤焉²⁰⁾

그가 逝去하자, 朴善長은 ‘祭外舅南三松文’을 지어 哀悼한 바가 있다.

② 李汝韻(1556~1631)

水西公과는 같은 洞里에서 平生을 交契한 사이였으니, 〈水西集〉에 ‘有懷李炊沙德薰汝韻’을 비롯하여, ‘次李德薰韻’·‘送李德薰之碧沙’·‘連夜夢李德薰’·‘送李德薰月城提督’·‘待李德薰不至’·‘吟贈李德薰’ 등의 漢詩가 收錄되어 있고, 〈炊沙集〉에도 漢詩 ‘次朴汝仁善長贈行韻’과 ‘祭朴汝文’·‘輓朴都事汝仁 二首’가 실려 있다.

居同一里又同襟
交契平生利斷金
共折桂枝臨晚景
俱榮鶴髮逐初心
謂言終始歡無極
遽隔幽明恨不任
況復堂存百歲老
知君地下此窻深

汝仁今已矣
我絕峨洋絃
鄰笛山陽月
難堪淚瀉川

또, 〈炊沙集〉卷之 三 師友錄 중에도

19) 嘯臯集 門人錄

20) ibid (18) 師友錄, 李炊沙汝韻所撰

朴善長 字汝仁 自寧海 幼少從師于榮川花川里 仍牽絲于師席作舅甥 自少勤學 有志操 鄉中若有文事 則必屬公焉 五十後 與余同乙巳及第 除成均館典籍 出爲禮安縣監及本道都事而終 年六十二 堂有百歲老母 哀哉²¹⁾

③ 吳 澧(1540~1617)

그는 退溪의 門人으로 水西公보다 15년이나 年上이었다. 字는 太源, 號는 竹圃, 1566년(明宗 21) 別試文科에 及第하여, 벼슬이 工曹參議에 오른 분이다.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宜寧에서 義兵을 일으켜, 郭再祐의 휘하에서 收兵將으로活躍했고, 丁酉再亂 때에도 다시 功을 세워 都元帥 權傑의 추천으로 通政大夫가 되기도 했다. 慶州府尹도 歷任했으니, 水西公의 先輩가 되는 處地인데, 그의 文集〈竹圃集〉에 ‘自遠堂次朴汝仁善長韻 二首’가 傳한다.

④ 其 他

水西公이 推尊하던 先輩로는 寒岡 鄭述, 西厓 柳成龍, 月川 趙穆, 忘憂堂 郭再祐 등이 있었으니, 〈水西集〉에는

- 上寒岡鄭先生述書
- 祭西厓柳先生成龍文
- 祭月川趙先生文
- 贈郭兵使再祐
- 聞郭兵使被論

등의 詩文이 있으며, 또 그밖에 朴澐·權虎臣·南衍·李汝遠·黃是·權俊臣·李介立·金榮祖·李安訥·權盼·金功 등과 詩로써 交遊한 것을 알 수 있다.

〈水西集〉卷之四 師友錄에는 丹谷 郭嶠이 지은 記錄이 있으니,

榮川串川 朴都事 諱善長 字汝仁 器局嚴正 操履信實 玩味典墳 有同芻豢之悅口 晚登雲路 猶且手不釋卷 眞所謂 貧賤不能移者也 余自少見愛於右文 琢磨薰襲之功 至白首 不敢忘故 與其子敬瑋 亦有兄弟之義云²²⁾

이라 하였다.

또, 正郎 權省吾의 聞見錄에도 水西公과의 人間關係를 말했으니,

先君(筆者注 陶隱 權虎臣) 嘗申申誨余曰 正直立朝 謙約居鄉 有栢巖金公功 吾嘗敬事之 如父兄 有長者風 無世俗態 有竹圃吳公澹 吾嘗倚重之 如賓師 事親盡孝 有晚翠金公蓋國 交友忠信 有悠然堂金公大賢 法律繩已 有水西公 吾愛敬之 如伯仲爾 其體念哉²³⁾

라고 하여 놓았다.

21) 月沙集 師友錄

22) ibid (8) 師友錄

23) ibid (22)

4. 水西의 五倫歌

五倫歌는 〈水西集〉 卷之 四에 실려 있는데, 먼저 漢文으로 小序가 있어, 이 時調를 짓게 된 動機를 밝혀 놓았다.

곧, 날로 混濁해 가는 人心을 안타깝게 여기고, 勸善懲惡의 뜻을 보이교자 한 것이니, 諸君子의 閱覽을 바라고 있다.

某 竊歎叔季人心日渝 中宵仰屋 以爲學古訓者 雖或爲物欲所蔽 喪其良心 而開古人書 即惕然 覺悟者有之 其不曉文義者 因物有遷 終於下流而止耳 此非可哀之甚者耶 因述鄙懷 作五倫歌 又作三章之亂 以示勸懲之義 今茲講信之夕 猥進于左右 幸願諸君子 垂覽採之如何

이 五倫歌의 製作時期는 이미 作者의 年譜에서 밝혀진 대로, 1612(光海 5)년에 龜灣書堂이 完成되자, 8월에 지은 것임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다.

여기 五倫歌 8首를 〈水西集〉의 表記대로 옮겨 둔다.

아마도 못흐 푸리 봄이슬 마즌 後에
 님 넘고 줄기 기러 밤나즈로 부러났다
 이 恩惠 하 罔極하니 가플 줄을 물너라 右 父子

이 님이 머기시고 이 님이 입피시니
 十生 九死호들 님의 德을 니줄느냐
 萬一에 大義을 모르면 厮養이나 다르라 右 君臣

두 姓이 호더 모다 함의 늘거 죽자 하니
 百年 情好야 이에서 더라마는
 그러도 恭敬호 줄 모르면 雌鳩 아니 인느냐 右 夫婦

몬져 나니 後에 나니 次序야 다물지라도
 압뒤혜 돌녀서 한 저조로 기러났다
 삼롭이 이 뜻들 모라면 禽獸마도 못흐리 右 兄弟

삼으로 삼긴 거시 이더도록 親厚호샤
 술 잡고 말홀 제 억게만 두드리라
 桑田이 바다물 되여도 信을 닛디 마로리라 右 朋友

唐虞 머러디고 漢唐宋이 니어시니
 天地 오라거니 世道 아니 變홀녀냐
 그러도 닐곱 구모 가자시니 五倫이야 모르라

옷밥이 不足하니 禮義 초리 겨를업서
 家塾 黨序을 不關이 너기느냐
 그러도 보고 들으면 비호리 이시리

이우줄 미이디 마라 이웃 미오면 갈 띄 업서
 一鄉이 버리고 一國이 다 버리리
 百年도 못살 人生이 그러그러 엇데리

이는 앞 5首로 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의 五倫을 노래한 다음, ‘三章之亂’이라 하여, 3首를 더 읊어 總括해 놓았으니,

- ① 世道가 變해도 五倫은 있다.
- ② 衣食이 不足해도 禮義를 차려라.
- ③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는 내용이다.

이에 小題를 굳이 붙인다면, ①五倫遵行, ②禮義修行, ③隣人相愛라고나 할 것이다.

그런데, 五倫歌로서 ‘亂’을 붙인 것은 本歌의 特異한 作法이니, 元來 ‘亂’이란 音樂의 끝을 뜻하고, 노래의 末尾에 있어 一篇의 大旨를 간동그려 노래함을 말하는 것이다.

關雎之亂 〈論語 泰伯〉

亂 樂之卒章也 〈集注〉

亂曰 已矣哉 國無人兮 〈楚辭 離騷〉

亂 理也 所以發理詞指 總撮其要也 〈注〉

凡作篇章旣成 撮其大要 以爲亂辭也 〈補注〉

水西의 五倫歌는 修辭法이 매우 뛰어나서, 無味乾燥하게 되기 쉬운 敎訓的인 內容을 쉽고 부드럽게 表現한 것을 볼 수 있다. 곧, ‘父子’를 노래하되, “한 치만도 못한 풀”은 子女요, “봄이슬 맞은 후에 잎이 넓고 줄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고 한 것은 父母의 慈愛로, 몸과 마음이 자라서 成熟한 人間이 되었음을 말했으니, 初章과 中章을 온통 隱喩法으로 읊었음은 놀랍다.

또, ‘君臣’은 初章에서 詩經의 主我蒸民을 換骨奪胎하여 衣食의 所從來가 모두 君恩에 있음을 깨우쳐, 中章과 終章에서 이를 받아 報德大義를 알아야 사람이라고 할 것을 “廝養이나 다르랴?”고 設疑法으로 노래하여, 한결 더 뜻을 깊었다.

그리고, ‘夫婦’에서는 初·中·終章이 一氣呵成으로 이루어졌으니, 서로 恭敬해야 함을 亦是 設疑法으로 다루었다.

다음은 ‘兄弟’란 次序만 다를 뿐, 한 것을 먹고 자란 固氣라고 일깨웠는데, 訓戒에 치우친 느낌이 크다.

또, ‘朋友’에서는 初章과 中章은 親厚한 사이에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이 謹嚴한 儒者의 風度를 확 풀어 놓아, 스스럼없는 友誼를 나타내고 있어, 佳篇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亂三章’은 總括的인 大旨를 거듭 強調함으로써 앞에서 노래한 5首를 뒷바라지 시켜 놓았다.

5. 歷代 五倫歌의 系統

儒教倫理의 基本的인 道德理念은 三綱五倫이었다. 그리하여, 朝鮮朝의 生活倫理도 五倫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民風敎化의 方便으로 五倫歌를 지은 詩歌作品이 여러 편 傳한다.

그리하여, 景幾體歌의 形態로 노래한 五倫歌가 <樂章歌詞>에 收錄되어 있는가 하면, 歌辭形式을 빌어 訓戒한 黃崐의 五倫歌와 柳榮茂의 五倫歌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時調로 그것도 聯時調形으로 노래한 五倫歌들의 作者와 作品을 살펴봄으로써 歷代로 이어진 系譜를 作成해 두고자 한다.

우선 現在까지 알려진 作品들을 그 製作年代順으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順	作 者	年 代	形 式	順	作 者	年 代	形 式
1	周 世 鵬	1495~1554	聯時調 6首	4	金 尙 容	1561~1637	聯時調 5首
2	宋 純	1493~1583	聯時調 5首	5	朴 仁 老	1561~1642	聯時調 25首
3	朴 善 長	1555~1616	聯時調 8首				

(1) 周世鵬의 五倫歌

周世鵬은 中宗 때의 文臣으로서, 字는 景游요, 號는 慎齋·南阜·巽翁·武陵道人이라 하니, 本貫은 尙州로 周文輔의 아들이다. 1522(中宗 17)년 別試文科에 及第한 뒤, 承文院正字가 되고, 賜暇讀書 후에 檢閱·副修撰·江原道都事·校理·禮賓寺正을 歷任했다. 1541(中宗 36)년에 豐基郡守로 赴任하여, 翌年에 順興 白雲洞에 麗末의 安珣을 모신 祠堂으로 晦軒祠를 세우고, 1543년 우리 나라 最初의 書院인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을 創設했다. 그 뒤로 直提學·都承旨·大司成·戶曹參判을 지내고, 1551(明宗 6)년에는 黃海道觀察使로 가서, 海州에 首陽書院(文憲書院)을 創設하여 崔冲을 祭享했다. 그 뒤로 大司成·同知成均館事·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清白吏에 錄選되고, 禮曹判書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文敏公이다.

그의 文集 <武陵雜稿·續集>에는 景幾體歌인 ‘道東曲·六賢歌·儼然曲·太平曲’ 등 6篇과 時調로 五倫歌와 君子歌 등 15首를 收錄해 놓았으니, 그 중의 五倫歌 6首는 다음과 같다.

1.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
이 말슴 닛디 말오 비호고야 마로령이다.
2. 아버님 날 나후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父母 옷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 닛다
이 德을 감하려 하니 하눌 마이 업스샏다.

3. 동과 함것과를 뒤라셔 살기신고
별와 가여미 아이 브돌 문져 아니
훈 ㅁ오매 두 뜰 업시 소기디나 마음생이다.
4. 지아비 받 갈나잔 더 밥고리 이고 가
빈 상을 들오더 늙섬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두르실가
5. 兄님 자신 저줄 내조쳐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兄弟웃 不和하면 개 도티라 हर리라.
6. 늘그니는 父母 尊고 兒우는 兄ㅁ투니
존튼더 不恭하면 어더가 다토히고
랄로서 ㅁ디어시든 절하코야 마로령이다.

이는 (1) 序首, (2) 父母恩德, (3) 主奴勿欺, (4) 夫婦恭對, (5) 兄弟友愛, (6) 尊長敬對의 內容이니, 이른바 五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과는 距離가 상당히 먼 것으로서, 聖賢古訓을 叙述한 敎訓歌라 할 것이다.

〈武陵續集〉의 註에서는

按海西時 見民俗之質質 乃作此歌 布施一路 以明人之大倫者也

라고 하였으니, 1551(明宗 6)년에 海州에다 首陽書院을 짓고, 이 五倫歌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겠거니와, 이는 後續되는 五倫歌類의 嚆矢가 되고 있다.

(2) 宋純의 五倫歌

宋純의 字는 守初 또는 誠之요, 號는 俛仰亭 또는 企村이고, 本貫이 新平이며, 宋泰의 아들이다. 1519(中宗 14)년에 別試文科에 及第하여 承文院權知副正字가 되었고, 檢閱 兼 春秋館記事官으로 賜暇讀書하였다. 뒤에 修撰·正言·校理·大司諫·刑曹參判·漢城府判尹·議政府右參贊 兼知春秋館事 등을 歷任하고, 1579(宣祖 12)년에 回榜宴을 열자, 鄭澈·高敬命·奇大升 등 湖南名儒와 道伯·邑宰 등이 百餘名이나 俛仰亭에 雲集하여 壯觀을 이루었다. 그는 歌辭 ‘俛仰亭歌’와 數多한 時調를 지어, 壬亂 前 湖南歌道の 中興主였으니, 이른바 俛仰亭歌壇을 形成시킨 사람이다.

그의 五倫歌 5首는 〈俛仰集〉에 漢譯歌가 傳하고, 國文原詞는 ‘父子有親’·‘長幼有序’·‘朋友有信’의 3首만이 傳하는데, 그것도 松江의 訓民歌 속에 그대로 援用되어, 小題도 ‘父義母慈’·‘兄友弟恭’·‘朋友有信’으로 變改되어 있다. 이는 松江이 江原道伯으로서 그곳 百姓들에게 警戒하는 自己의 時調와 함께 섞어서 勸勉한 것이었다.

1. 父子有親

阿爸兮生我 阿嫗兮育我

苟非兩恩德兮 而此身兮生嫗

如天罔極恩德 于何可準兮爲報

아바님 날 낳하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
하늘 마튼 마업손 恩德을 어디 다해 갑소오리

2. 君臣有義

君王統百姓兮 作父母兮位焉

群臣如天仰之兮 用一身兮獻之

惟祝壽兮 於萬年兮

3. 夫婦有別

一家而爲號兮 亦內外兮不同

故夫婦之間兮 俾嚴正兮成之親

且可愛之意兮 須以識兮以生

4. 長幼有序

兄兮弟兮 撫爾肌兮視之

賦自于誰兮 樣子兮從以似

喫一乳兮長 一抱異心兮無以

형아 아히야 네 솔홀 돈져 보와
뉘 손더 타나판더 양지조차 마튼손다
호젓 먹고 길러나 이셔 닷맛음을 먹디 마라

5. 朋友有信

凡人有生之中兮 如友兮有信

吾之有非兮 欲盡是兮

此身苟匪此友兮 其爲人兮易乎

놈으로 삼긴 동의 벗 마티 有信 하라
내의 원 이를 다 닐으려 호노매라
이 몸이 벗님곳 아니면 사름되미 쉬울가

(1)의 ‘父子有親’에서는 父生母育之恩을 銘心하고, 그 크신 恩德에 報答해야 함을 노래 하되, 直叙法으로 表現하여 놓았다. 이것이 訓民歌에 援用된 事實에 대하여 <俛仰集>의 家狀에서는

今其詞曲 尙流播未泯 而松江鄭公澈訓民歌 第一第二亦有引而採者²⁴⁾

라고 하여, 松江 鄭澈의 作品이 아님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2) ‘君臣有義’와 (3) ‘夫婦有別’은 <俛仰集>에 漢譯歌만 傳할 뿐, 다른 時調集이나 文獻들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그 內容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곧, (2)는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매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니, 못 신하는 하늘처럼 우뚝을 것이요, 한 몸을 바쳐 祝壽萬年할 뿐이라고 노래했다.

또, (3)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사는 夫婦라도 內外가 분명하여 같지 않으니, 嚴正히 예절을 지키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읊었다.

(4) ‘長幼有序’는 <俛仰集>의 漢譯歌와 <松江歌辭>의 國文原詞가 꼭 같으니, 亦是 宋純의 作品이 틀림없다. 그 主旨는 兄弟는 同氣間이라 모습도 같으며, 한 젖을 먹고 자랐으니, 他意를 품지 말라고 勸誘한 노래다.

(5) ‘朋友有信’도 漢譯歌만 <俛仰集>에 있고, 國文原詞는 <松江歌辭>에 收錄되어 있는데, 그 內容은 他人으로서 有信한 게 벗어나, 숨김없이 사귀어 人格을 갖추어가라고 노래한 것이다.

이 宋純의 ‘五倫歌’는 儒教倫理의 原型인 五倫의 本意를 그대로 時調形으로 表現한 것이다.

(3) 金尙容의 五倫歌

金尙容은 仁祖 때의 文臣으로 字는 景擇이며, 號를 仙源이라 했다. 安東人으로 金尙憲의 兄이다. 1590(宣祖 24)년 增廣文科에 及第하여, 都承旨·大司憲·刑曹判書·判敦寧府事·禮曹와 吏曹判書를 歷任했다. 丙子胡亂 때에 江華城이 陷落되자 自決하니, 諡號를 文忠公이라 했다.

그는 訓戒子孫歌 등 13首의 時調와 함께 五倫歌 5首가 傳하고 있다. <仙源續稿>에 收錄된 五倫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子息 사이 하늘 삼긴 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烏鳥도 反哺를 하니 父母 孝道하여라

右 父子之倫

24) 俛仰集 家狀

2. 님군을 섬기오더 正훈 길노 引導하야
鞠躬 盡瘁하야 죽은 後의 마라스라
가다가 不합곳하면 물너간들 엇더리 右 君臣之倫
3. 夫婦라 히은 거시 늬으로 되어 이서
如鼓 瑟琴하면 괴 아니 즐거오나
그러코 恭敬곳 아니면 即同禽獸하리라 右 夫婦之倫
4. 兄弟 두 몸이나 一氣로 논화시니
人間의 貴훈 거시 이 外에 또 잇는가
갑주고 못 어들 거손 이쨌인가 하노라 右 長幼之倫
5. 벗을 사귀오더 처음의 삼가하야
날도곤 나오니로 끝하야 사귀여라
終始히 信義를 덕히여 久而敬之하여라 右 朋友之倫

(1) ‘父子之倫’에서는 父子間이 天倫임을 말하고, 反哺之孝를 하라고 勸勉했다.

(2) ‘君臣之倫’에서는 임금을 섬기되 正道로써 하고, 죽기까지 忠誠하야야 하지만, 萬一 不합하면 물러나도 좋을 것이라 하여, 몇몇한 臣下의 道理를 일깨우고 있어, 毅然한 作者의 心境을 엿볼 수 있다.

(3) ‘夫婦之倫’에서는 서로 恭敬할 것을 말했고,

(4) ‘長幼之倫’에서는 兄弟友愛를 強調한 것이며,

(5) ‘朋友之倫’은 交友의 道理로 勝己者를 가려 사귀되, 信義로써 久而敬之하라고 노래 하였다.

(4) 朴仁老의 五倫歌

朴仁老는 密陽人으로서 字는 德翁이요, 號를 蘆溪 또는 無何翁이라 했다. 慶北 永川에서 出生하여, 平生을 安貧樂道로 詩歌를 벗하고 지낸 분이였다. 壬亂七載를 抗倭의 武夫로 지내다가, 1955(宣祖 32)년에 武科에 及第하여 守門將·宣傳官·助羅浦萬戶를 歷任했다. 그는 誠敬忠孝의 四大字로 座右銘을 삼고, 旅軒 張顯光, 寒岡 鄭述 등에게 問道하며, 漢陰 李德馨을 從遊하는 閑居生活를 보냈다.

그리하여, 歌辭 7篇과 時調 68首를 남기는 歌客으로서 國文史上에 燦然한 光輝를 發하였거니와, 亦是 그는 道學君子였기에 ‘五倫歌’를 지어 教訓하되, 25首의 長篇 聯時調를 남겨 놓았다.

이 作品은 <蘆溪集>의 五倫歌 題下에 ‘父子有親’ 5首, ‘君臣有義’ 5首, ‘夫婦有別’ 5首, ‘兄弟友愛’ 5首, ‘朋友有信’ 2首, ‘總論’ 3首가 收錄되어 있는데, 아마도 ‘朋友有信’은 元來 5首였던 것을 後에 文集刊行時에 漏落시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이 五倫歌의 製作時期는 ‘兄弟友愛’의 內容으로 미루어 볼 때, 二弟(仁叟·仁耆)의 死後임이 分明하므로, 蘆溪公의 나이 74歲 以後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의 아우 仁叟가 1634(仁祖 12)년에 죽었기 때문이다.

I. 父子有親

- 1-1. 아버지는 나오시고 어머니는 치옵시니
 昊天岡極이라 갑홀 길이 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다 한가 하노라

이는 父生母育之恩이 至大하여 大舜의 誠孝로도 다 갚지 못함을 노래하되 <孟子>(離婁上)에 있는

舜盡事親之道 而瞽瞍底豫 瞽瞍底豫 而天下化 瞽瞍底豫 而天下之爲 父子者定 此之謂大孝
 를 時調形으로 換骨奪胎한 것이다.

- 1-2. 人生 百歲中에 疾病이 다 이시니
 父母를 섬기다 몇 힘을 섬길넉고
 아마도 못 다 홀 誠孝를 일즉 버퍼 보렷로라

이는 父母의 生存期間이 짧으니, 誠孝를 다하여 事親하라는 것인데, 이는 鄭松江의 ‘訓民歌’에 있는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답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와도 같은 內容의 勸誘다.

- 1-3. 父母 섬기기를 至誠으로 섬기리라
 鷄鳴에 盥漱하고 禦寒을 못즈오며
 날마다 侍側奉養을 沒身不衰호리라

이는 作者 自身の 決意를 表明한 態度이니, 單純히 남에게 敎訓하는 다른 이들의 五倫歌와는 判異한 蘆溪公의 道文一致를 보는 듯하다.

- 1-4. 世上 사름들아 父母恩德 아늑산다
 父母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나
 生死葬祭에 禮로써 終始 갖게 섬겨시라

이는 <論語>(學而篇)에 있는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를 念頭に 두고 노래한 것으로 父母恩德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 1-5. 三千 罪惡 中에 不孝에 더니 업다
 夫子의 이 말씀 萬古에 大法 삼아
 아모려 下愚不移도 밋쳐 알게 하렷로라

이는 <孝經>에 있는 “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라는 孔子의 말씀을 敷衍한 것이다.

II. 君臣有義

- 2-1. 聖恩이 岡極호출 사람들아 아낀소나
 聖恩곳 안니면 萬民이 살로소나
 이 몸은 岡極호출 聖恩을 감고 말려 호노라

이는 君恩을 감고야 말겠다는 蘆溪自身の 愛君之誠을 나타낸 時調이니, 그는 漢詩 ‘述懷’ 二首에서도 이러한 哀情을 吐露했는 바, 그 중의 一首만 보이면,

草野愚情一個身
 念時憂國暗傷神
 聖恩未報頭先白
 西望長安漏濕巾

이라 하여, 憂君愛君하는 誠心이 骨髓에 사무쳐 있어 生活化하였음을 알게 한다.

- 2-2. 稷契도 안닌 몸에 聖恩도 岡極호사
 百 번을 죽어도 감홀 날이 업것마는
 窮達이 길이 달나 못 피압고 설웠로라

이는 蘆溪公이 草野에 묻혀 있으므로, 임금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身勢를 안타까와한 것이다.

- 2-3. 사들 삼기실 제 君父 갖게 삼겨시니
 君父 | 一致라 輕重을 두로소나
 이 몸은 忠孝 두 사이에 늘글 주를 모르노라

이는 君父一致임을 말하고, 忠孝一事로 平生을 살아갈 것임을 노래한 것이다.

- 2-4. 深山의 밤이 드니 北風이 더욱 차다
 玉樓 高處에도 이 뜨는 부리 게오
 긴 밤의 처우신가 北斗 비져 바리로라

이는 北風이 차니 임금님께서도 추우시지나 앓으신지 念慮하는 衷情을 편 것이니, 直說의인 敎訓歌의 境地를 넘어선 次元 높은 作品이다.

- 2-5. 이 몸이 죽은 後은 忠誠이 녀시 되야
 높히 높히 너라 올라 閻闔을 불너 열고
 上帝씨 우리 聖主를 壽萬歲케 비로리라.

이는 生時에 다하지 못한 忠誠을 死後에도 계속하여 聖主의 萬壽無疆을 上帝께 祝願하겠다는 것이다.

Ⅲ. 夫 婦 有 別

- 3-1. 夫 婦 | 이 신 後에 父 子 兄 弟 삼 겨 시 니
夫 婦 곳 아 니 면 五 倫 이 가 들 소 나
이 中 에 生 民 이 비 릇 하 니 夫 婦 크 다 ㅎ 로 라

이는 夫 婦 야 말 로 五 倫 의 根 本 이 요, 生 民 의 始 發 點 임 을 노 래 한 것 이 다.

- 3-2. 사 람 내 실 적 의 夫 婦 又 게 삼 겨 시 니
天 定 配 匹 이 라 夫 婦 又 치 重 훈 소 나
百 年 을 아 積 삼 아 如 鼓 瑟 琴 ㅎ 려 로 라

이는 夫 婦 가 天 定 配 匹 이 므 로 所 重 히 여 기 고, 和 樂 하 게 지 내 야 함 을 노 래 한 것 이 다.

- 3-3. 夫 婦 을 重 타 훈 들 情 만 重 케 가 질 것 가
禮 別 업 시 居 處 하 며 恭 敬 업 시 조 훈 소 나
一 生 에 敬 待 如 賓 을 冀 缺 갓 지 ㅎ 오 리 라

이는 夫 婦 間 에 情 도 重 하 지 만 禮 儀 도 있 어 야 하 니, 冀 缺 의 故 事 를 본 반 아, 아 내 를 敬 待 如 賓 하 라 고 勸 誘 한 것 이 다.

- 3-4. 夫 婦 삼 길 적 의 하 重 케 삼 겨 시 니
夫 唱 婦 隨 하 야 一 家 天 地 和 ㅎ 리 라
날 마 다 舉 顏 齊 眉 을 孟 光 又 게 ㅎ 여 라

이는 남 편 을 섬 기 는 아 내 의 가 질 바 태 도 에 대 하 여 東 漢 의 賢 女 인 孟 光 처 럼 和 順 한 얼 굴 로 남 편 을 恭 敬 하 라 고 하 였 다.

- 3-5. 남 으 로 삼 긴 거 시 夫 婦 又 치 重 훈 년 가
사 람 의 百 福 이 夫 婦 에 가 갓 거 든
이 리 重 훈 스 이 에 아 니 和 코 엇 지 ㅎ 리

이는 夫 婦 間 에 和 合 함 이 百 福 의 根 源 이 라 고 말 하 여, 이 項 의 結 詞 로 삼 았 다.

XII. 兄 弟 有 愛

- 4-1. 兄 弟 내 실 적 의 同 氣 로 삼 겨 시 니
骨 肉 至 親 이 兄 弟 又 치 重 훈 년 가
一 生 에 友 愛 之 情 을 훈 몸 又 치 ㅎ 리 라

이는 兄 弟 는 同 氣 間 이 며 骨 肉 親 戚 에 서 도 가 장 所 重 하 므 로, 平 生 友 愛 를 가 져 야 함 을 노 래 하 였 다.

- 4-2. 爭 財 에 失 性 하 야 同 氣 不 睦 마 라 스 라
田 地 와 奴 婢 는 갑 슬 주 면 살 려 이 와
아 모 려 萬 全 인 들 兄 弟 살 더 있 느 나

이는 爭財로써 同氣間에 不睦하지 말라는 것이니, 鄭松江의 訓民歌 중에 있는

„江原道 百姓들아 兄弟 송스하디 마라,
종취 밧취는 엇기에 험거니와,
어디 가 또 어들 거시라 흘것할것 호는다”

와도 그 詩想이 一脈相通한 것이다.

4-3. 友愛를 尤篤하야 百年을 호티 살며
호 옷 호 밥을 논하 님고 논하 먹고
白髮에 아취 줄 모르도록 호기 놀자 호노라

이는 兄弟友愛를 平生토록 敦篤히 하고자 함을 노래한 것이다.

4-4. 同氣로 셋 몸 피야 호 몸가치 지너다가
두 아은 어디 가서 도라을 줄 모르논고
날마다 夕陽門外에 한숨계워 호노라

이는 具體的으로 蘆溪公 自身の 生活를 노래한 것이다. 곧 三兄弟로 태어나서 이제 二弟를 먼저 死別하고, 혼자 孤寂한 心情을 吐露한 作品이다.

4-5. 友愛 집흔 쓰지 表裏 업시 호 뜻 피야
이 中에 和兄弟를 우린가 너겨져니
엇지라 白首雙鴈이 혼자 울 줄 알리오

이것도 前章에 이어서 두 아우를 잃은 作者의 외로움을 노래한 것이니, 그의 漢詩 ‘有感’ 과도 詩想이 비슷하니,

宜弟宜兄睦一家
人言友愛世無加
如今謾作孤飛雁
隻影虛堂只自嗟

에서도 똑같은 心情을 吐露하고 있다.

V. 朋友有信

5-1. 벗을 사귄던던 有信케 사괴리라
信 업시 사괴며 恭敬 업시 지닐소냐
一生에 久而敬之을 始終 업게 호오리라

이는 벗을 사귀는 道理로서 信義와 恭敬의 美德을 지닐 것임을 노래하였다.

5-2. 言忠 行篤하고 벗 사고기 삼가오면
내 몸에 辱 업고 외다 호리 적거이와
진실로 삼가지 못하면 辱及其親호오리라

이는 交友에 삼가서 父母에게 辱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 惡友를 멀리하고, 善友를 벗하여야 함을 教訓한 것이다.

VI. 總 論

- 6-1. 天地間 萬物 中에 사람이 最貴하니
最貴한 바는 五倫이 아니온가
사람이 五倫을 모르면 不遠 禽獸하리라

이는 初·中章이 온통 慕齋 金安國이 지은 <童蒙先習>에 있는
“天地之間 萬物之中 惟人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
를 끌어 놓은 것으로서 獨創性이 없는 作品이다.

- 6-2. 幸茲 秉彝心이 古今 업시다 이실시
爰輯 舊聞하야 二三篇 지어시니
嗟哉 復生들아 살펴보고 힘써 하라

이는 五倫歌를 짓게 된 動機를 말하고, 後輩들에게 힘써 實踐할 것을 勸誘하였다.

- 6-3. 仔細히 살펴보면 뉘 아니 感激하리
文字는 拙하되 誠敬을 삭여시니
진실로 熟讀詳味하면 不無一助하리라

이는 五倫歌를 지은 것이 表現은 稚拙하되, 誠敬은 새겨 있으니 熟讀詳味하면, 한 가지 도움은 될 것이라고 하여, 總括的으로 끝마무리를 지었다.

上述한 바와 같이, 中宗 때의 周世鵬에게서 비롯하여 仁祖 때의 朴仁老에게 이르기까지 5명의 作家들이 지은 五倫歌를 볼 때, 通時的으로 어떤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받은 바가 없다. 그러나, 共通的인 特徵인 그것들이 모두 儒教倫理를 時調形으로 表現했다는 點이라 할 것이다.

6. 結 言

水西 朴善長의 五倫歌는 時調 8首로 一篇을 이룬 連作時調인데 道德的인 教訓歌이다.

이 時調의 製作時期는 1612(光海 5)년 8월이며, 그 製作動機는 龜灣書堂이 竣工되어 鄉中生徒들을 모아 教導하게 된 기쁨과 使命感에서 지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 作品을 둘러 줄 對象들은 洞中學者들이었으니, 水西公은 그들을 警策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이로써 時調作品으로 된 五倫歌는 周世鵬·宋純·金尙容·朴仁老 등과 함께 朴善長의 作

品도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特히 그 構造的인 特徵으로서 ‘亂三章’을 들 수 있는 바, 이것은 蘆溪의 ‘總論’과도 相通하는 作法이라 할 것인데, 水西公이 그 先鞭을 잡은 것이니, 獨創性에 있어 可謂 水西公의 五倫歌는 卓越한 作品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水西公의 長子인 朴敬도 時調 ‘鋤莠歌’ 1首를 지어, 그의 文集인 〈東川遺稿〉單에 收錄되었으나, 아직 學界에 알려져 있지 않다. 如何間 父子가 함께 時調作家로서 國文學上에 論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朴敬과 그의 時調에 대하여서는 紙面에 制限이 있어서, 이곳에선 畵愛할 수밖에 없으므로, 別稿로 發表하려고 한다.

參 考 文 獻

- 郭再祐, 忘憂集, 木版本, 5卷, 4冊
 郭 嶠, 丹谷集, 木版本, 6卷, 3冊
 金 玊, 栢岩集, 木版本, 6卷, 4冊
 金尙容, 仙源遺稿, 木版本, 7卷, 3冊
 金榮祖, 忘窩集, 木版本, 5卷, 4冊
 金榮祖, 忘窩年譜, 木版本, 1冊
 南夢鰲, 三松逸稿, 木版本, 1冊
 朴 敬, 東川逸稿, 木活字本, 3卷, 1冊
 朴 敬·朴施天, 過養世稿, 石版本, 2卷, 1冊
 朴善長, 水西集, 木版本, 4卷, 2冊
 朴仁老, 蘆溪集, 木版本, 3卷, 2冊
 朴 全, 松坡逸稿, 木版本, 1冊
 宋 純, 倪仰集, 影印本, 1冊
 吳 灃, 竹牖集, 木版本, 5卷, 3冊
 李介立, 省吾堂集, 木版本, 3卷, 2冊
 李安訥, 東岳集, 木版本, 26卷, 13冊
 李汝諷, 欽沙集, 木版本, 5卷, 3冊
 李 竣, 蒼石集, 木版本, 18卷, 10冊
 李 涵, 雲嶽集, 木版本, 3卷, 1冊
 周世鵬, 武陵雜稿, 木版本, 16卷, 9冊
 周世鵬, 武陵續集, 活字本, 1冊
 黃汝一, 海月集, 木版本, 14卷, 7冊
 國朝榜目(影印本), 國會圖書館, 1971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서울·世宗文化社, 1972
 李相寶, 朴蘆溪研究, 서울·一志社, 1962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서울·螢雪文化社, 1974
 林仙默, 水西와 五倫歌, ‘國文學論集’ 第2輯 檀國大學校, 1968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서울·乙酉文化社, 1954